

	<h1>보 도 자 료</h1>	행정안전부 자치경찰지원단 부단장 안효철(044-205-3340) 서기관 유대준(044-205-3222)
		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담당관 유승렬(02-3150-2504) 경 정 이동규(02-3150-2604)
	<p>2021년 10월 8일(금) 조간 (10. 7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과 장 최종윤(02-2100-2261) 경 정 박준영(02-2100-2262)

「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회의」 개최

- 100일 성과 점검.향후 발전방안 모색 등 1·2부로 구성, 온라인 개최 병행 -
- 기초강연, 주제발표, 정책토론,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 등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, 경찰청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*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‘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’를 개최했다.
 - 이번 컨퍼런스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(7.1.)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.
 - * 18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금년 8월 25일 구성
 -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약칭 : 경찰법)」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.
-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·도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들을 수립, 시행하고 있다.
 - 그 결과 지역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,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.

□ 이날 행사는 1·2부로 구성 되었으며 1부에서는 중앙-지방이 함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보고, 2부에서는 시·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, 주제 발표(△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△법제 정비방향)와 정책토론을 진행했다.

※ 행사 시간계획 붙임

- 1부 행사에는 18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과 권영진 대구시장,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,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시행 100일을 축하했다.
 -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을 맡은 김현대 경남도자치경찰 위원장이 ‘100일 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’에 대해 발표하고, △각 시·도의 1호 시책 △위원회 실질화에 필요한 사항 △향후 추진 로드맵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.
 - 2부 행사에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(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, 법제 정비방향)와 정책토론 시간을 가졌다.
 - 정책토론에서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관계자,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참석해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.
- 행사 참석자들은 “시·도 중심의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”고 의견을 모았다.
- 권영진 대구시장은 환영사에서 “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고, 이를 위해 지역의 민생치안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”고 밝히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.
 -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2.0시대의 핵심과제”라며 “제도적 과도기의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해 제도를 주민 곁에 안착시켜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- 김창룡 경찰청장도 “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차츰 호응을 얻고 있다”며 “협업의 정신으로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 것”이라고 당부했다.

- 시·도와 관계부처에서는 이날 논의된 문제점 등을 더 깊이 분석하여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, 이는 향후 경찰청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.

-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방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치안서비스가 각 시·도별로 다양하게 시작되고 있다”라며 “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행사 개요 * 현장참석 최소화 및 YouTube 라이브 방송 진행

- 일시/장소 : 10. 7.(목) 11:00 ~ 16:30/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
- 참석 : 50여명(시·도자치경찰위, 자치분권위, 행안부, 경찰청, 대구시 등)
- 주최 :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/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/
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
- 주관 : 대구경북연구원

□ 시간 계획

구분	시 간	주 요 내 용	비 고	
제 1 부	등록	10:30~11:00 30'	· 참가자 등록	
	토론회 개회식	11:00~11:05 5'	· 개회 및 내빈소개	전문MC
		11:05~11:20 15'	· 개회사(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) · 환영사(권영진 대구광역시장) · 축 사(김창룡 경찰청장)	대구시장, 자치분권위원장, 경찰청장
		발 표	11:20~11:30 10'	·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과제
	기념촬영	11:30~11:35 5'	· 기념촬영	
	기 조 강 연	11:35~12:00 25'	·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임무	홍준형 교수
		12:00~13:00 60'	점 심	
제 2 부	제1회 정기회	13:00~14:00 60'	· 전국시·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회 정기회 (진행 :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)	시·도경찰위원회 위원장
	주 제 발 표	14:00~15:00 60'	·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·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방향	양영철 강석구
		15:00~15:10 10'	휴 식	
	정 책 토 론	15:10~16:30 80'	· 「시민밀착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 제언」 - 좌장 : 김태봉(광주자치경찰위원장)	황문규(사무국장), 허경미(위원), 유승렬(경찰청담당관), 서창호(인권운동연대)
	폐 회	16:30		